원광법사식 PL

▣ 글 / 도예자 대표 신라엔지니어링

세속(世俗)은 이 험한 세상, 범속한 세상, 속세(俗世)를 의미하며, 또한 세속의 풍속을 말한다. 그래서 세속적이라고 하면 성(聖)스럽지 못한 것, 세속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지칭한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은 세상의 자질구레한 온갖 일에 휩싸이고 만다. 다시 말해서 세속잡사(世俗雜事)에 제물이 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벼슬을 그만두고 한적한 시골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비가 많았다고 한다. 중국 진(晉)의 도연명(陶淵明)이 지은 전원의 낙을 그린 글인 《귀거래사(歸去來辭)》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고 있다. 그만큼 속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든다. 신앙의 세계나 선경(仙境) 등에 대하여 이 세상을 일컫는 말이 속세간(俗世間)이다. 먼지와 티끌이 있는 세상, 곧 진세(塵世)다.

신라 진평왕 때의 원광법사(圓光法師)가 지은 화랑(花郞)의 계명이 세속오계(世俗五戒)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사군이충(事君以忠)·사친이효(事親以孝)·교우이신(交友以信)·임전무퇴(臨戰無退)·살생유택(殺生有擇)의 다섯 가지를 이름이다.

임금을 섬김에는 충성으로써 하고, 어버이를 섬김에는 효도로써 하고, 벗을 사귐에는 믿음으로써 하고, 전쟁에 임하여는 물러나지 아니하고, 살생은 가려서 하라는 것으로 곧 함부로 살생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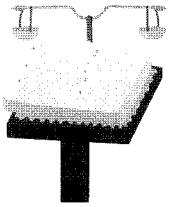
사람이나 동물 따위의 산 것을 죽이는 소위 살생(殺生)은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금기시해 왔다. 그래서 살생계(殺生計)라 하여 불교에서, 오계(五戒) 또는 십계(十戒)의 하나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 있다. 그리하여 불교에서는 자비의 정신으로 생물을 애호하기 위하여 사냥을 금하는 일이 이른바 살생금단(殺生禁斷)이다. 따라서 무자비한 살생을 범한 죄, 또는 그 죄로 받는 벌을 이르는 말로 살생죄(殺生罪)가 있다.

제조물책임(PL)시대 도래

이제 우리는 제조물책임(PL)시대로 들어와 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언제 어느 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PL에 대비하여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필히 지켜야 할 5가지의 행동지침을 여기에 적어본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그리고 판매·유통업체 및 대여업체는 꼭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마음가짐(mind)을 확고히 정해야 한다. 긍정



- PL법 대비 5가지의 행동지침 -

-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제품안전(PS)이 전제되어야 한다.**
- **모든 사실과 자료를 항상 문서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정돈하여야 한다.**
- **피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사전에 적절한 생산물책임보험(PL insurance)에 가입하여야 한다.**
- **늘 고객의 미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실한 기업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지도력 아래 전사원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임해야 한다. 최고경영자에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한 뜻으로 통일된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뭐니뭐니해도 제품안전(PS)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감없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있는 무결점의 양호한 제품이 처음부터 설계되고 제조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소비자를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부의 품질관리 체계를 가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사내의 철저한 문서화(documentation)를 통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모든 사실과 자료를 항상 문서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정돈하여야 한다. 특히 제품의 사용설명서, 지시 및 경고사항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쉽게 해독할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출고시점을 기록하여 후에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제조업체로서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다. 이른바 제품의 추적가능성(trace ability)으로 후일 공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료제출에 있어서 주요한 단서가 된다.

넷째 사전에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고는 발생하며, 그것도 예고 없이 찾아든다. 피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사전에 적절한 생산물책임보험(PL insurance)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최선책은 물론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PL보험에 가입하여 유사시에 피해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데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가능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입는 피해(damages)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늘 고객의 미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실한 기업풍토를 조성하고 고객을 높이 모시는 선진화된 기업 이미지(entrepreneurial image, entrepreneurship)를 제고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고가 일단 발생하였을 때는 자력으로만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또 진흥원의 전기제품 PL상담센터(ADR : 법원외 분쟁조정기구)에 지체없이 의뢰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